



에드워드·엘머·스미스작
(Edward Elmer Smith)

徐光云訳
(한국SF작가클럽 회장)

○제1작=우주의 스카이라크

리처드·시튼은 미지의 금속「X」를 연구중에 있었는데 그것이 구리(銅)와 결합함으로써 맹렬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사실을 발견한다.

시튼은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우주선을 만들기 하고 친구인 富豪 마틴·클레인과 함께 우주선 스카이라크호의 건조에 착수한다.

귀금속연구소에서 시튼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이자 라이벌이던 마크·듀케누박사는 시튼들

의 계획을 눈치채고 미지의 금속「X」와 구리의 비밀을 훔쳐낸다.

그리고선 시튼으로부터 더 많은 비밀을 얻어내려고 시튼의 약혼자 드로시·베먼을 인질로 삼기 위한 흉계를 꾸민다.

스카이라크의 시운전이 성공한 날, 듀케누는 금속「X」와 구리를 동력으로해서 자기가 만든 소형우주선으로 드로시를 납치한다. 이때 저항하던 드로시가 우주선의 예진 레버를 건드리는데 바람에 우주선은 순식간에 대기권을 탈출, 가없는 대우주속으로 돌진하고 만다.

차토편파스의 힘으로 드로시가 우주공간에 있는 것을 알아낸 시튼과 클레인은 스카이라크를 몰고 듀케누의 뒤를 쫓는다. 지구로부터 5천광년이나 떨어진 우주공간에서 듀케누의 우주선을 붙잡은 시튼은 드로시와 함께 감금된 또하나의 아가씨 베기·스케서를 구출해낸다.

그러나 스카이라크는 연료원인 구리가 이미 바닥이나 듀케누를 생포한 채 가까운 행성 오스놈에 착륙한다. 오스놈에서는 마르도날레와 코니다르의 두 나라가 6천년동안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시튼들은 코니다르쪽을 편들어 마르도날레軍을 격파하고 오스놈에 평화를 안겨준다. 그 공으로 그들은 코니다르의 귀족 대접을 받고 시튼과 드로시, 클레인과 베기는 거기서 결혼식을 올린다.

그들은 코니다르의 우월한 기술로 만들어진 기계류와 귀금속을 갖고 지구로 귀환한다. 그러나 그들이 성총권에 다달았을 때, 듀케누는 스카이라크를 탈출하여 홀로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갔다.

○제2작=스카이라크 3호

오스놈으로부터 구원을 청하는 使者が 시튼을 찾아온다. 오스놈이 같은 태양계인 우르버니아로부터 공격을 받고있다는 전갈이다. 스카이라크를 몰고 오스놈으로 향한 시튼들은 우주공간에서 정체불명의 적의 공격을 받는다.

시튼이 개발한 「力場발생장치」 덕분에 적의 우주선을 파괴할 수 있었다. 생포한 적의 선장

의 뇌를 탐색해본즉 그들은 페나클론인이며 은하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낸다.

그러나 페나클론인들의 과학력은 우수하며 스카이라크로선 도저히 덤빌 수가 없다. 시튼은 페나클론인들의 위협을 설득하여 오스놈과 우로버니아를 화해시키고 페나클론인의 무력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아 우주탐색에 나선다.

이무렵, 숙적 듀케누도 시튼을 격파하기 위한 새 지식을 찾아서 우주를 헤매고 있었다. 그는 시튼이 격파한 페나클론인의 또하나의 생존자를 구조해내고 페나클론인을 이용하여 시튼을 타도하려고 작정한다.

시튼은 거대한 스카이라크를 몰고 정신과학을 발달시킨 행성 노르라민에 도달한다. 거기서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노르라민의 과학을 배우고 제5계열의 광선에 관한 지식을 익힌 시튼은 이 지식을 구사하여 스스로의 立体像을 우주의 도처에 投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시튼은 이 능력을 이용하여 페나클론인들의태양을 폭파해 버리고 페나클론인들의 우주선을 차례차례 파괴한다. 시튼은 은하계의 평화를 지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제 3 작 = 발레론의 스카이라크

페나클론인과의 싸움에서 죽은줄 알았던 듀케누는 죽지않고 살아남았다. 그는 시튼들이 순수지성체와의 전투에서 패해 4차원 공간으로도

망간 틸을 타서 노르라민의 지식을 훔쳐내 지구를 정복해 버린다.

4차원 공간에서 탈출한 시튼들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은하계에 나타나서 행성 발레론을 습격중인 클로라인들과 싸워 이를 격파한다.

발레론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스카이라크를 건조한 그들은 자기들의 은하계로 돌아와 순수지성체와 듀케누의 정신을 에너지 캡슐에 밀폐하고 우주공간의 저편으로 발사해버린다.

○제 4 작 = 스카이라크 처 듀케누

계산착오로 캡슐에서 탈출한 듀케누가 주인공으로 활약한다. 시튼에게 복수하기를 맹세한 듀케누는 시튼이 멸망시킨 것으로 알았던 클로라인들이 실은 만 은하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모든 인류를 정복하려고 노리고 있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음을 깨달은 듀케누는 시튼에게 협력을 청하고 클로라인을 전우주에서 말살하려고 행동을 개시한다.

그리하여 시튼, 클레인·듀케누 세사람의 엄청난 정신력을 모아 클로라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행성을 파괴하는데 성공한다.

그후 듀케누는 자기가 시튼과 같은 은하계에서는 공존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여성핵물리학자 스테퍼니·매리니와 함께 새로운 은하계를 찾아서 향발한다.

작가와 작품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스미드라고 불리는 에드워드·엘머·스미드(1890~1965)의 처녀작 <우주의 스카이라크>는 SF史上 처음으로 인류가 태양계의 바깥 세상으로 진출한 내용이며 스페이스·오페라出現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됐다.

그의 작품은 과학적인 묘사의 격조가 높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스카이라크·시리즈> 외에도 시간적·공간적으로 보다 웅대한 <렌즈맨> 시리즈가 있다.

이 시리즈는 高度의 지성체 아리미아인에 의해서 조직된 은하순찰대가 사악한 옛물인을 멸망시키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7권에 수록되어 있다.